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화인테크 본사 및 공장 전경. 화인테크는 이곳에서 고효율에너지기판, 전자식안정기 및 등기구 등을 ISO9001 품질시스템에 의해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진단,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다

에너지컨설팅으로 기초부터 에너지절약

화인테크주식회사(대표 심규호)는 형광램프용 전자식인정기 등 등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임과 동시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펼치는 ESCO이다. 94년 6월 설립된 이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전문회사로서의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1, 2종분야 ESCO로 등록하여 조명개체사업을 활발히 펼쳤고 3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활기로 가득찬 화인테크의 ESCO사업본부를 찾아가 본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

ESCO사업 시작 3년차인 화인테크가 ESCO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등록 초기 부산지역 ESCO사업으로 지난해는 경기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화인테크는 사업건수 50여건에 40여억원의 매출을 올려 연평균 30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일반공사를 포함, 3배 정도 성장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 ESCO 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제품 판매 신장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ESCO사업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ESCO사업부의 최형석 이사는 화인테크의 ESCO사업 참여배경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초기 조명개체사업에 치중했던 화인테크의 기술력이 이제는 설비 컨설팅분야로까지 접

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12명인 사업부 인력을 조명팀과 설비팀으로 나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컨설팅을 병행하게 된 데에는 ‘이제 양보다도 질이 우선’이라는 ESCO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등록된 160여 ESCO중 화인테크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ESCO의 생명인 진단에 있어서도 저희는 고객의 주문사항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장실태조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객과 ESCO의 이익만 따지지 않고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고려,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한 에너지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놀랄 정도입니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최 이사의 말에 따르면, ESCO사업이 국내에 도입된지 10년째이지만 아직도 ESCO사업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화인테크는 현장에 ESCO의 개념을 이해시키면서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전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공사를 완료한 미도파백화점 상계점은 에너지절감률이 60%로 나타나 화인테크 뿐만 아니라 백화점 측에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 조명기기의 교체와 인버터 설치공사에 7억4천만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었고 이는 48개월에 걸쳐 회수될 예정이다.

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전류 예열형 전자식안정기 개발, 특허출원 에너지절약기기 R&D에도 투자

화인테크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ESCO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신제품에 대한 본사의 개발능력과 ESCO사업부의 아이템 선정이 적절한 조화를 이뤘기 때문.

98년 9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화인테크의 전자식안정기는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인 GQ마크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고, 99년 12월에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치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ESCO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심규호 대표가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인테크는 이 여세를 몰아 최근 전자식안정기의 효율을 극대화한 '정전류 예열형 전자식안정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중이다.

이 정전류 예열방식은 예열시간과 예열전류를 정하여 예열시켜 주기 때문에 램프 제조사별 특성에 관계없이 충분히 예열한 후 점등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안정기에 맞는 모델 램프를 구분하여 끼울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리함과 동시에 긴 수명을 보장한다. 화인테크는 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세계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설비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소비자와 함께 하는 ESCO사업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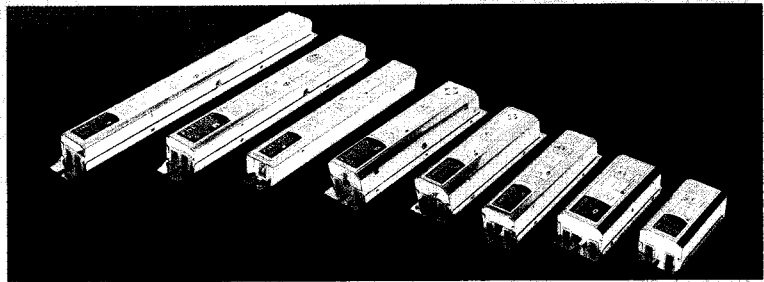
최형석 이사는 '소비자 밀착 영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술이 없는 영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업 8년만에 조명업체의 상위 클래스에 진입한 저력을 바탕으로 ESCO사업에 있어서도 입지를 굳혀나갈 것입니다. 영업력이나 차별화된 분야에서는 절대

“

화인테크는 최근 전자식안정기의 효율을 극대화한 '정전류 예열형 전자식안정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이 정전류 예열방식은 예열시간과 예열전류를 정하여 예열시켜 주기 때문에 램프 제조사별 특성에 관계없이 충분히 예열한 후 점등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식안정기에 맞는 모델 램프를 구분하여 끼울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리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킨다.

”



화인테크가 생산하고 있는 각종 전자식안정기의 모습. 최근 이 회사는 전자식안정기의 효율을 극대화한 '정전류 예열형 전자식안정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최형석 ESCO사업부 이사는 단순히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절감활동으로 ESCO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프로젝트 진행은 화인테크에서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ESCO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기적 차원에서 파이낸싱 능력을 겸비한 ESCO가 가장

이상적인 ESCO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최 이사는 또한 협회를 활성화시켜야 ESCO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SCO 대표들이 인식을 전환하여 ESCO협회 활동이나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할 때 ESCO사업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인테크 ESCO사업부에는 ESCO업무에 능통한 이들이 모여있다. 하루하루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는 이 사람들은 모두 내실있는 ESCO활동이 결국은 회사도 키우고 ESCO사업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임오년 올 한 해가 그들에게는 너무 짧을지도 모를 일이다.